

454/“여성노동자들은 권영길을 지지합니다”

8 민주노총 | © 승인 2007.12.12 15:11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3번 권영길 후보 여성노동자 3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

여성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대통령 권영길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3번 권영길 후보 여성노동자 3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지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한국 여성노동자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정치 승리를 갈망하며, 한미 FTA를 반대하고, 여성 비정규직화·빈곤화를 철폐하기 위해 앞장서는 후보, 평화와 통일 한반도를 열어나갈 후보, 성평등 사회건설 탁월한 비전을 제시하는 권영길 후보에게 희망의 한 표를 찍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일터와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조직해, 12월19일 세상을 바꾸는 길에 여성노동자가 앞장서 노동자대통령 권영길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자신을 특수고용직 간병인 노동자라고 밝힌 한 여성노동자는 “수구언론들이 만들어낸 이명박 후보는 과거 노동탄압 선봉에 섰고 재벌을 위해 일할 반노동자적 후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을 선택하면 노동자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며 노동자 서민들이 ‘노망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절대 이명박을 찍어선 안 된다”며 “노동자들을 대표할 권영길 후보를 선택해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제가 바로 권영길”이라며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자신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후보, 특수고용노동3권을 보장하고 3백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후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양질 일자리를 창출할 권영길 후보와 함께 대선승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2월19일 여성노동자는 노동자후보에게 꼭 투표합시다!”를 외치고, ‘사무직여성’ ‘일하는여성’ ‘실직여성’ ‘특수고용’ ‘제조업여성’ ‘여성비정규’ ‘짹자!권영길’이라고 씌어진 손피켓을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대선승리를 다짐했다.

홍미리기자